

중보기도팀 소식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중보기도팀은 1월 5일 찬양과 회개기도를 하며 2012년 새해의 문을 열었다. 추운날씨에도 160여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부족함에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한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새비전과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도울지를 알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은 1월 8일(주일)부터 2월 16일(목)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드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청년부에서는 2012년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 하게 된 신입생들(23기)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13일(금)~14일(토)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함께 하는 MT를 가졌습니다. 23기 신입생 지체들은 이제 막 고등부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대학 지원 및 진

로를 놓고 많이 고민하게 될 시기입니다. 이번 신입생 환영 MT는 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한편, 고등부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은 후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 지체들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3기 신입생 지체들이 앞으로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 이정민 전도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所望(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골로새서 1:5)

소망(hope)의 辭典的(사전적) 의미는 “바라는 바”이며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이다. 또한 “所願(소원), 希望(희망), 意望(의망)”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헬라문학에서 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소망은 성령의 은사로써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 필수적인 요소이다.

所望(소망)의 문자적 의미

★所(바 소, 곳 소): “문이나 집”을 의미하는 戶(문 호, 집 호)와 “도끼”를 상징

하는 斤(도끼 근, 날 근)이 결합되어 「문 밖에서 도끼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바 장작 패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望(바랄 망): “없다”는 뜻의 亡(망할 망, 없을 무)과 하늘의 “달”을 상형화한 月(달 월)과 “나타나다”는 뜻을 지닌 𠂔(나타날 임, 북방 임)의 결합문자로써 「없어진 달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밤낮 일해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밤을 밝힐 조명수단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만든 소망의 문자인 것이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은퇴목사 초청예배



참으로 인생의 날이 짧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했다”고 하던 야곱의 고백이 생각난다. 그래도 지내보니 금방 돌아갈 날이다. 지내 놓고 보면 세상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은 남는 것이 없고 주(主)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만이 남는 듯하다. 1월 17일(화) 서울 은퇴 목사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위로예배를 드렸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으시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섬김과나눔 소식(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어로빅



지금이라는 시간은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하다. 지금이 모여 만들어 내는 오늘, 새벽, 즐거움에 이겨... 몸을 마음껏 흔들어 본다.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에서 30여명의 시민들이 이른 새벽 에어로빅을 즐기고 있다.

2월말까지 운영되는 무료 에어로빅교실로 주일은 쉬고 매일 아침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님의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과 서울메트로에서 함께하며 사전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칫 움추러들기 쉬운 시민들의 겨울에 지하철역 에어로빅 교실과 함께 신나고 활기차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섬김과나눔 소식(2) 송파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소식



2012. 1. 17 (화) 박원호 주님의교회 담임목사와 박춘희 송파구청장등이 참석하여 마천2동에 위치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장 개관식을 가졌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의 기관

이 1층에 함께 있어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여2동 송파보건지소 건물 2층으로 이전 확장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층 전체를 산뜻하게 단장하고 개관식을 가지게 되었다. 주님의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은 2011년 7월부터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송파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전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처리함으로써 건강한 우리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_ 마 28 : 20

통 권 제 296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1월 29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교육공간 확충과 국제교육센터

이에 따라,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교육의 해’로 정해, 교회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부족한 교육 공간을 확충하는 일과 국제교육센터를 세우는 일을 들었다. “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와 교육의 연결과, 선교의 사명입니다.”라고 밝힌 박 목사는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목회 방침을 교회학교에 접목하게 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같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장년들이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친구 사역을 하는 것처럼,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도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12년, 작년에 이어 ‘교육의 해’로 선포

2012년 목회방침과 소망 함께 나누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라는 말씀에 따라, 2012년 주님의 교회 표어는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정해졌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2012년 새해를 맞은 1월 8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2012년 목회 방침과 소망에 대하여 그 배경과 구체적인 방향을 전 성도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교육은 사회 회복 위한 교회의 중심 사명

박원호 담임목사는 오늘날 ‘주일학교’라고 부르는 교회교육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일요일학교(Sunday School)의 사례를 들어, 올해 목회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목사는,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기주의, 폭력, 범죄 등 갖가지 사회 문제가 팽배했던 영국 사회가,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주도되어 교회에서 열었던 일요일학교의 영향으로 회복되었던 사례를 설명하고, 교회 교육이야말로 교회를 통해 사회 전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사명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과 부모

주님의교회 안에서 교육 공간의 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왔던 문제이다. 특히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교육의 문제, 중고등부의 부족한 공과공부용 공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올해 목회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성하여 사용하고, 부족한 공간은 기존 건물의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 모든 사역은,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재정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물론, 교회교육이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터이다. 박 목사는 이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이며,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 편집부 >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간증의 글을 모집합니다.

2012년 주님의교회의 목회 방침은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작년에 이어 ‘교육’이 다시 목회방침의 주제가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교육’이야말로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은 교회 뿐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함글함글’에서는, ‘담론보다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이 소중한 소명과 관련한 우리 자신의 삶 속의 여러 이야기를 이 지면을 통해 서로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쁨과 설렘, 갈등과 좌절, 극복과 은혜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소재 _

벧속의 태아에게 쓰는 편지, 말썽꾸러기 손자에게 주는 교훈, 어린 시절의 추억과 꿈,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글, 옛 스승에게 보내는 고백, 교회에서 만난 첫사랑,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쓰는 글, 노년의 부부가 서로 나누는 편지 등,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2. 형식 _

편지글, 일기문, 수필등 어떤 형식이어도 됩니다.

3. 분량 _

200자 원고지 2~3매입니다.

4. 기고자 _

원하시는 경우, 기고자의 성명을 익명으로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5. 원고접수 _

제목에 “땅끝 원고”라고 붙이셔서, 2012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원고보낼 곳 _

hamletter@hanmail.net

삶을 함께 나누려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고를 기대합니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수요예배 특강>

-2.1(수) / 저녁7시30분

<새벽기도 헌신자 헌신의 시간>

-1.29(주일) 3부예배시 / 본당

<교육목회원 전체교사 헌신의 시간>

-1.29(주일) 4부예배시 / 본당

<2012 목사고시 응시자>

-4층 교역자실로 신청

<새가족환영회>

-1.29(주일) 오후3시30분 / 지하식당

<청년부 수련회>

-2.2(목)~2.4(토) / 진새골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열려



2012년을 맞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헌신의 기쁨으로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기도회에서는 서울장신대총장으로 재직 중인 문성모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일주일 동안 총 800여 명에 이르는 성도가 참여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뜨겁게 밝혔다. 첫째 날은 “종 됨의 자리”, 둘째 날은 “영적 능력”, 셋째 날은 “성숙한 믿음”, 넷째 날은 “사명감에 사는 사람”, 다섯째 날은 “제자 나다나엘”, 여섯째 날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문 목사의 설교는 간결하고 차분하면서도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했다. 특히 마지막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축복하면서 인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감동을 온전히 전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올 한 해 주님의교회의 새벽을 기도로 밝힐, 새벽예배 헌신자를 모집했는데, 애초 목표였던 120명을 넘는 145명이 자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김희영 기자_hykim62@hammail.net >

예배부 통역사역팀



통역사역팀에서 통역요원 및 통역예배 안내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5명의 통역요원과 2명의 예배안내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일 본 예배 2부와 3부시간에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박원호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 기도 속에 통역을 준비하여 주일 예배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기도와 예배순서들은 통역자 스스로 즉석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통역에 경험이 있고 한글성경을 통독해 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토요일마다 설교내용을 하루 전에 먼저 접하게 되는 감사함과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통역을 위해 의미를 되새김하고 영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역자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통역사역을 통해 내가 주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 주님이 역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통역사역팀 나혜원 집사_011-842-1595 >

신임교역자 소개

부목사



임창진 목사

<가족사항> 아내 / 이은정, 딸 / 임다희, 임다은, 임주는
<사역분야> 2030부부교구(10교구), 수요찬양, 4부예배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 제게,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김정형 목사

<가족사항> 현재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역분야> 양육클래스, 행정지원

샬롬^^ 주님의교회 교우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저는 올해 12단계 성경공부팀을 섬기면서 국제교육선교센터의 사역을 돕는 일과 양육분과 내 양육클래스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준전임 전도사



박상현 전도사

<사역분야>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청소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항상 설렙니다. 청소년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광제 전도사

<사역분야> 청년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 1부(20-25세)와 청년담당 목사님을 도와 사역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어 가며 행복하게 섬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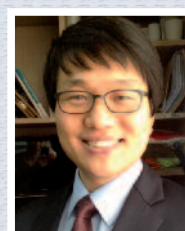
교육 전도사



소은혜 전도사
초등1부 햇살뜨락



홍만우 전도사
초등2부 햇살뜨락



김범석 전도사
2030부부교구(10교구)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한국에 정착할 북한이탈주민들을 적응훈련 시키는 곳입니다. 안성과 양주 2곳을 운영중이지요.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국경을 건너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몇 달 전 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국경을 넘은지 5일 만에 태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위와 추위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잡히면 북송된다는)을 느끼며 중국 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불안감과 긴장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중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고생하고 제3국에 들어가지요. 5일 만에 태국에 들어간 분도 북한 국경을 넘을 때는 너무 무서워 마약을 하고 넘었다고 하더군요.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추위에 하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추위가 어떠한지 질문에 ‘일 없습네다. 이런 추위는 추위도 아님네다’ 답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며 중국을 통해 이들에게 보낼 방한복을 모았습니다. 많은 교인 분들이 정성껏 깨끗이 손질한 옷들을 아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종이 상자에 포장해

하나원을 다녀와서

서주신 교우 분, 아이들 내복을 주신 분, 상표가 아직 붙어있는 새 옷을 기증하신 분, 잇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방법이 없냐고 묻는 분을 비롯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중 한분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옷을 쇼핑백이나 보자기로 싸서 내주셨는데 이분은 아주 따뜻해 보이는 털옷을 책상위에 놓고 가셨습니다. 같이 접수받던 집사님이 정말 좋은 옷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며 보니 스웨터만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출지않겠냐고 여쭙니 괜찮다고 하시며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잠시 후 생각해

보니 입고 계시던 옷을 벗고 가셨던 것이지요. 연세도 지긋해 보이던 분이셨는데 같이 계시던 집사님이 혹 실랑이 아니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뵈며 머릿속에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길을 건다가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냥 벗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접수를 도와주시던 권사님이 “김집사도 입고 있는 거 벗어 놓아도 되겠네.” 하시더군요. 저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옷은 안됩니다.” 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저희교회에서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한 것은 벌써 4년째입니다. 연고도 없이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이들. 죽을 고비는 넘었지만 앞으로 어떤 삶이 다가올지 전혀 모르는 이들. 낯선 땅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죠? 새로

운 타국에 이민 간 느낌일까요? 요즘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첫 번째 따뜻한 밥을 지을 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북한보다는 덜한 추위이지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도록 목도리를 선물했구요. 무엇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분들에게서 방문 때마다 기도제목을 받아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원팀에서는 매달 3째 주일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 북한선교위원회 하나원팀 김광일집사 >

지족(知足)

고대 희랍인에게는 ‘행복’이 ‘행운’이었습니다. 좋은 운수,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많은 몫이 행복을 구성했습니다. 그건 현대인의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옛적 희랍인들은 과분한 운수가 신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넘칠 것 같으면 비우고, 더 자랄 것 같으면 치고 그랬지요. 당시 소크라테스가 한말과 같이 “너 자신을 알라.”가 실은 “네 분수를 알라.”는 가르침이었거든요. 바울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 그때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영어의 몸으로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친근한, 깊은 글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깊은 옥’ (행 16:24)에서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평화의 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최선의 여건에서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저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빌4:19).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령 충만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여기서부터가 아닐까요? “계영배”라는 게 있지요? 경계할 계, 찰 영, 잔 배, 짬 차는 것을 경계해서 잔의 칠부 정도만 채워야지 그 이상 부었다가는 바닥으로 전부 빠져버리게 만든 잔이지요. 지금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몇 개 구해서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주시지요. 아직 덜 찬 듯싶어도, 부족하다 싶어도,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기가 죽는 듯해도, 아무렴 내 것이 좋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조국, 내 교회, 내 아내/내 남편,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은 하나님 최고! 당신이 제일! 괜히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와 같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깃, 줄쳐서 마음껏 누리라고 베푸신 구역, 그 안에 모든 있을게 다 있는 걸요! 아예 좀 부족하다 싶을 때에 만족한 걸로 여겨야 합니다. 모자라는 것 같은데 섭섭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바로 그게 행복 아닙니까?

< 한형석 안수집사 >

PCL Cartoon

조수민



함글함을 편집부

편집장: 홍기협 / 편집지문위원: 정양재

편집기자: 노대홍, 정선화, 장경식, 김희영, 이은주, 정경혜, 신형섭, 김상미, 김주현, 이정훈, 박민지

사진기자: 서정하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 담당 교역자: 최용석